

박여범의 소소한 일상

나의 고백은 민들레 홀씨 되고(II)

3. 황혼, 민들레 홀씨 되어
황혼의 기본의기는 '해
가 누워있어서 어두워
질 무렵, '세력이나 나이 따위가
안장이었을 때를 지나 쇠퇴하여
종말에 가까운 때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의 명사다.

예시 분장으로는, '권력에는 반
드시 황혼이 있는 법이다', '나는
인생의 황혼에 접어들면서 자주
지나온 내 생애를 뒤돌아보게'
된다. 유의어로는 '늙고파', '황
기미', '석양(夕陽)', '막경(末
境)', '말년(末年)' 등이 있다.

불현듯, 나는 '늙고파'에 무엇
을 할 수 있을까? 곧 다가올 '황
혼'에 나의 모습이 어떨까? 등
등 이런저런 풀리지 않는 질문을
던져본다.

그렇지만, 부명한 것은 주어진
비례의 시간을 아무런 의미 없이
보내고 싶지는 않다는 결론은 확
고하다. 불확실한 미래지만, 적지
한 자기완성과 준비도 나의 생애
대해 시간을 채워가고 싶다. 황혼
에 다가오는 민들레의 홀씨 여행
처럼, 화려하지 않지만, 미련은
없을 것이다.

황혼빛 소리 없이 들드는
길목에 서면
받히는 진땀 되어
떠다니는 번뇌

눈보라 속 해매는 고래나 같은
쓸쓸한 인생 여정
가는 길 수선화 한 송이
피어 있으면 좋으련만...

너와 나 굳게 닫힌
마음 빗집은 열고
태극적 울음 한번



박 여 범

용북중학교 · 시인
문학박사 · 문학평론가

속 시원히 물어 보자

모든 미련 버리고
민들레 홀씨 되어
남은 인생길 떠나가 보자
('민들레 홀씨 되어', 위의 책, 39쪽·적분)

위의 시에서, /황혼빛 소리 없
이 들드는/길목에 서면/받히는
진땀 되어/떠다니는 번뇌/처럼,
소리 없이 나에게 다가온 '황혼'
은 정서적인 번뇌를 가져오는 경
우가 많다. 이러한 증상은 10대,
20대에서도 흔히 나타나는 증상
이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에 적
응하여 살아간다 보면, 이드레 황
혼에 서 있다.

정말 순식간에 지나가는 것이
시간이다. 보통 '황혼'에 대한 구
체적 생각은 미래에 돌아두기를
꺼린다. 왜냐하면, '황혼'이라는
단어 자체가 우울함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소소한 시기를 시인은 /
눈보라 속 해매는 고래나 같은/
쓸쓸한 인생 여정/가는 길 수선
화 한 송이/피어 있으면 좋으련
만...이라는 어조로 표현하고
있다.

나이가 이 답답함을 /너와 나
굳게 닫힌/마음 빗집은 열고/태

극적 울음 한번/속 시원히 물어
보자/며 자신을 위로하며, /모든
미련 버리고/민들레 홀씨 되어/
남은 인생길 떠나가 보자/라는
시적 언어로 단순한 심리상태를
민들레에 빗대어 강조하고 있을
을 알 수 있다.

4. 나의 고백이 안겨준 행복
'눈물'과 '귀사는 내 평생 자
국을 치유하는 가장 기본적인 음
식이다. 겨겨이 쌓여 있는 번뇌의
고통은 눈물로 씻어 버리지 않으
면 방법이 없다. 누구에게나 있는
병을 깨끗하게 정화하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니다.

그래서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주
어주는 시간이지다. 그 쓰임에 따
라 만족도가 다른 것이다. 시간이
번뇌를 해결하는 방법은 /구름
안고/사계절 배웅하는 여유로움/
이다. 이 여유로움은 보릿빛 향기
가 되어 시인을 감싸고 구름 위
에 떠 있는 것처럼 번뇌가 해소
된다.

결결이 포개 입은 번뇌 못
벗고 내니 눈을 납니다
내 마음 멍든 자국 치유되던 날
감사기도 올렸습니다

하늘 위 흘러가는 구름 안고

사계절 배웅하는 여유로움
보릿빛 향기 되어 다가옵니다

이 모든 은혜
내 연민 감싸 안고
어느 날 홀연히 떠나버린
그대 배려 가슴 아리게
다가옵니다

낙엽 흘리는 모습
지는 석양 아름답게 보임도
자수성가 아들

나에게 안겨준 행복입니다
('나의 고백', 위의 책, 39쪽·
적분)

'여유로움'은 세월이 가져온 선
물이다. 세상의 모든 연민을 끌어
안을 수 있다면, 어느 날 홀연히
떠나버린 민들레 씨앗이 매려가
언제나 큰 것이지를 알 수 있다.
가슴 아리게 다가오는 그리움으
로 지는 석양에 낙엽 흩날리던
그스름까지도 아름답다. 그것은 자
수성가한 아들이 나에게 안겨준
커다란 행복이라고 시인은 고백
하고 있다.

항상 감사함으로 사는 것은 축
복이다. 기쁨도 슬픔도 감사가 될
수 있다면 그 자체가 감사한 것
이다. 누구에게나 상처가 된 것은
자극들이 누구에게는 '아픔'으로,
누구에게는 '성장의 밑거름'으로
거듭날 것이다.

마음가집이 든다. 어려운 문
제가 아니다.
자료를 모아 생각을 바꾸고 진
지하게 실천해 보자. 그런데도
'여유로움'이 자꾸만 달아나면,
그러라고 지켜보자. 가다가 지칠
때까지 기다려주자. 그 기다림의
여유가 바로 축복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사설

새만금 행정구역 문제

새만금 행정 구역 문제를 들
러싸고 논란이 심각하다. 특히
단일 행정을 둘러싼 시군의 찬
반 논쟁이 뜨거워지고 있다. 이
런 가운데 새만금의 행정구역
을 하나로 통합하는 게 가장
적합하다는 결론이 나와 주목
된다.

새만금개발청은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미 연구 용역
을 발주했다. 용역 결과 새만금
의 행정과 관리 권한을 통합한
단일 행정 체계가 적합하다는
결론이 나왔다.

새만금개발청은 매립 후 등기
를 하거나 기업을 유치할 때
단일 행정구역이 훨씬 효율적
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이 같은 용역 결과를
실행하기 위해서는 풀어야 할
과제가 많다.

먼저 군산과 김제, 부안을 하
나의 '통합 새만금시'로 만들
거나 새만금 지역만을 대상으
로 '새만금시'를 만들어야 하
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서는 한
시적 행정 주체인 전라북도 출
장소를 설치하는 방안도 제시
됐다.

그러나 전라북도가 실제 추진
에 나설 경우 군산, 김제, 부안
등 해당 시군들의 반발 속에
찬반 논란이 뜨거워질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11월에 개통한
새만금 동서도로는 아직까지
주소가 없다.

행정구역 신청 후 토지 지번
이 부여되는데 아직 새만금의
행정구역이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또 군산과 김제, 부
안은 새만금 행정구역을 놓고
10년 가까이 갈등을 빚고 있다.

여전히 3개 시군을 설치하는
작업이 쉽지 않아 보인다. 특히
거대한 통합 새만금시를 만들
면 군산과 김제, 부안의 기능이
축소돼 반발이 클 것으로 예상
된다.

새만금개발청은 전라북도와
함께 공론화 작업을 통해 시군
과 주민을 설득하고 관련 조항
개정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2023년까지 전라북도 출장소를
설치한 뒤 이후 통합시를 출범
하자고 제안했다. 그러나 공론
화 작업이 시작되면 치열한 경
쟁이 불 보듯 뻔하다. 찬반 논
란이 불가피 하기 때문이다.

지역신문 정부 지원 문제

지역신문 발전 문제에 대한 정
부 지원 제도 개선이 절실하다.
지역신문 활성화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고 있으나 가시적인 효과
가 없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역신문이 살아야 지
방이 산다'는 말은 결코 틀린 말
이 아니다.

지역신문은 풀뿌리 민주주의의
근간이다. 지역 균형 발전을 실행
하는 유용한 도구로 일컬어지기
때문이다. 지역신문은 지방분권
개선에 발맞춰 그 역할과 기능이
갈수록 중요해지고 있다.

지방의 여론을 선도하고 의견을
모아 지역 발전의 목소리를 내주
는 지역 언론은 필수 요소다. 지
역 언론이 있어야 지역 발전도
달보될 수 있다. 그리고 균형 잡
힌 나라가 될 수 있다.

지역신문의 발전은 지방분권과
민주주의 발전을 이끄는 원동력
이다. 지방신문 발전을 위한 제도
적 장치 마련은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현실은 전혀 판관이다. 지
역신문들은 대부분 위기 상황에
처해 있다.

경영 환경은 매우 열악하다. 미
더 환경도 급변하고 있다. 정부
의 무관심도 이미 오래다. 상당수
지역신문은 생존하기에 급급할
뿐이다.

정부는 지난 2005년 지역신문
발전 지원 특별법을 제정했다. 문
제는 이 법이 한시법이라는 점이다.
지역신문들은 3년마다 법안을
연장시키기 위해 힘을 쏟았다.

법안의 핵심인 지역신문 발전
기금은 해마다 줄어들었다. '있으
나 마나 한 기금'이 된 셈이다.
지역신문을 살리기 위해서는 특
별법을 일반법으로 전환해야 한
다. 기금 규모를 늘리고 체계
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물론 지역
신문을 살리기 위해서는 지역신
문들의 주체적인 노력이 더 중요
하다. 그러나 그 다음은 정부의
지원이다.

정부는 지역 언론이 국가의 토
대가 되고 지역 발전을 가져올
수단임을 인식해야 한다. 정부의
지원책 마련은 물론 관련 법안이
내실 있는 법안으로 연결되기를
기대한다.

사외기고는 본보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독자제언

코로나 시대와 함께 변화하는 집회시위 문화

집회시위 현장에서 우리나라 국민
이 보여준 성숙한 시민의식과 이 같
은 성숙한 시민의식을 바탕으로 진
행되는 집회의 모습들을 보면서 평
화적인 집회시위 문화가 정착되어
있음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코로나19라는 감염병 상황
을 맞아 집회시위 문화에도 많은 변
화의 필요성이 요구되고 있다.

이에 경찰은 지자체 통보를 통한
방역 조치의 강화, 거리두기를 위한

대화경찰관 증원 등 코로나19로부
터 시민의 안전을 보호하고 평화적
집회시위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또한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집회시
위 현장에서 인권과 안전을 최우선
으로 삼고 집회시위 자유 보장, 현
장 안전 확보에 중점을 두면서, 불
법의 정도가 큰 경우 경찰력을 투입
해 적극적으로 예방 및 제지한다는
방침이다.

주최 측은 집회시위 참여자를 대
상으로 출입자 명부작성, 마스크 착
용 의무 등의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한다. 경찰도 중
분한 소통을 통해 방역수칙 준수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도와 평화적
집회시위가 개최될 수 있도록 할 것
이다.

만약 이를 지키지 않는다면 시민
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게 되고 시
민들의 공감대를 얻지 못할 것이다.

이러한 행동은 본인의 가족과 주변
사람들을 위협하게 할 수 있다는 것
을 주지하여야 할 것이다. 현재 코
로나 백신접종이 순차적으로 진행
되고 있다.

원활하게 끝나 코로나19에서 벗어
나 집회시위를 통해 마음껏 의사 표
현을 할 수 있는 날이 오기를 바라
면서, 집회시위 현장에서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코로나19 상황에 맞는
성숙한 시민의식과 새로운 형식의
집회를 통해 더 많은 시민이 공감할
수 있는 도전도 필요하다고 생각한
다. 이철현 남원경찰서 경비계 경사

용기와 희망을 주는 인간을 위한 정론지

"더 좋은 신문, 더 사랑 받는 신문, 독자와 함께하는 신문"을 위해
전주매일의 전 직원들은
'전북 최고의 신문'을 제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진정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중앙지를 답습하는 형태를 벗어나 보다 깊이 있게
내 고장 소식을 빠르고 정확히 독자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겠습니다.

당신의 어려움을 속 시원하게 풀어 드리기 위해
대안적 비판 기능을 강화하고 있으며
한 단계 더 성숙한 네트워크 구축과 함께
지역발전의 수레바퀴를 힘차게 굴리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인간중심 · 도덕중심 · 지역중심 **전주매일**